

고종욱 결승타 포함 3안타…KIA, SSG에 3-2로 1점차 승리

등록 2025.07.03 21:42:31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5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5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 7회초 무사 노주자 KIA 고종욱이 솔로포를 친 뒤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2025.06.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SSG 랜더스에 워닝 시리즈를 거두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KIA는 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벌어진 2025 신한 쏠뱅크 KBO리그 SSG와의 경기에서 7회 터진 고종욱의 결승타에 힘입어 3-2로 이겼다.

이번 SSG와의 3연전에서 2승 1패를 따낸 KIA는 43승 3무 36패를 기록하며 4위를 유지했다. 공동 2위 롯데 자이언츠(45승 3무 35패), LG 트윈스(45승 2무 35패)와는 1.5경기 차다.

KIA의 1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한 고종욱이 7회 결승타를 날리는 등 4타수 3안타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해 팀 승리를 견인했다.

경기 초반 기선을 제압한 것은 KIA였다.

1회말 고종욱의 내야안타와 박찬호의 우전 안타로 1사 1, 3루가 됐고, 최형우가 우전 적시 2루타를 때려냈다. 후속타자 오선우가 2루수 땅볼을 치면서 3루 주자 박찬호가 득점했다.

끌려가던 SSG는 3회 1점을 따라붙었다.

오타곤, 기예르모 에레디아의 연속 안타로 일군 2사 1, 3루에서 최정이 좌전 적시 2루타를 날렸다.

SSG는 5회초 이지영이 볼넷과 박지환의 희생번트로 만든 1사 2루에서 오타곤이 우전 적시타를 터뜨려 2-2로 균형을 맞췄다.

KIA와 SSG는 7회부터 나란히 볼펜을 가동했고, 승부는 볼펜 싸움에서 갈렸다.

7회초 등판한 전상현이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 2-2 균형을 유지한 KIA는 이어진 공격에서 리드를 가져갔다.

7회말 선두타자 김호령의 내야안타와 김태군의 희생번트, 김규성의 볼넷으로 1사 1, 2루가 만들어졌다.

SSG가 투수를 전영준에서 박시후로 교체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이날 물오른 타격감을 자랑한 고종욱은 박시후를 상대로 중전 적시타를 날려 2루 주자 김호령을 홈으로 불렀다.

KIA는 박찬호의 좌전 안타로 1사 만루 찬스를 이어갔으나 패트릭 위즈덤, 최형우가 범타로 물러나 추가점을 뺏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볼펜진이 귀중한 1점차 리드를 지켜냈다.

8회초 등판한 조상우는 삼진 2개를 곁들여 1이닝을 무실점으로 봉쇄했다.

KIA 마무리 투수 정해영은 9회초 등판해 1이닝을 1피안타 무실점으로 틀어막고 시즌 22세이브째(2승 3패)를 수확했다.

승리는 전상현의 몫이 됐다.

KIA 토종 에이스 양현종은 승리투수가 되지 못했으나 6이닝 5피안타 4탈삼진 1사사구 2실점으로 제 몫을 다했다.

SSG 선발 문승원도 6이닝 4피안타 5탈삼진 2사사구 2실점으로 퀄리티스타트(선발 투수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를 써냈으나 승패없이 물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xiu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